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배상문 "엄마, 나 PGA 챔피언 먹었어"

배상문이 PGA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극성 엄마'로 골프계에서 유명한 시옥희(57)씨가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이천 SK텔레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상문과 그의 캐디를 맡고있는 어머니 시씨. /연합뉴스

배상문이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 18번 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 … 최경주·양용은 이은 쾌거
챔피언 키운건 어머니 … 열혈 헌신 '골프맘 스토리' 화제

배상문(27·캘러웨이)이 한국, 일본에 이어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배상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파70·7166야드)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PGA 투어 통산 3승을 올린 강호 키건 브래들리(미국)와 접전끝에 2타차로 제쳤다. 4라운드 초반 버디 4개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탄 배상문은 이후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적어내 타수를 까먹기도 했지만 16번홀(파5)의 짜릿한 버디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 스코어는 13언더파 267타였다.

◇PGA 투어 진출 2년 만에 첫 정상= 2008년과 2009년 한국 프로골프투어 상금왕에 올라 국내 무대를 제패한 배상문은 2011년 일본 무대에서도 상금왕을 차지했다. 이어 2012년 미국의 문을 두드린 배상문은 도전 2년째에 PGA 투어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 117만 달러(13억원)를 받은 배상문은 이날까지 시즌 상금 159만2794 달러를 벌어들여 시즌 상금 랭킹에서도 지난주 108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한국 국적 선수로는 최경주(43·SK텔레콤), 양용은(41·KB금융그룹)에 이어 세번째로 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계 교포 선수인 앤서니 김(27·나이키골프), 케빈 나(30·타이틀리스트), 존 허(23)까지 포함하면 여섯번째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열린 4라운드에서 초반 주도권은 배상문이 완전히 잡았다. 브래들리에 1타 뒤진 2위로 출발한 배상문은 3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보기를 적어낸 브래들리를 단숨에 추월, 1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어 5번홀(파3)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낸 배상문은 브래들리와의 격차를 4타로 벌리며 완승 모드로 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티샷이 흔들린 배상문은 9번홀(파4)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티샷이 왼쪽 러프로 날아간 뒤 나무를 넘겨 친 두번째 샷이 그린을 지나쳐 워터 해저드에 빠져버렸다. 1벌타를 받고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배상문은 2퍼트로 마무리, 더블보기를 적어냈고 10번홀(파4)에서도 1타를 잃어 1타차로 추격당했다.

배상문에게 우승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은 16번홀(파5)이었다. 세번째 샷으로 볼을 홀 1.7m에 붙인 배상문은 깔끔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다시 단독 선두로 나섰다.

17번홀(파3)에서 나온 브래들리의 난조는 배상문의 우승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 배상문은 티샷을 홀에서 7m나 멀리 떨어뜨렸지만 파로 막았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그린을 놓친 뒤 두번째 샷만에 그린 위에 올라왔지만 5m 가까운 파퍼트가 홀을 외면,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18번홀(파4)에서 배상문의 파퍼트가 들어간 뒤 우승이 확정되자 이동환(26·CJ오쇼핑), 노승열(22·나이키골프) 등 동료 선수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어머니 희생 자양분삼아 기량 꽃피워= 배상문은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 탓에 흔

한 태극마크 한번 달지 못하고 비주류로 출발했으나 특유의 장타와 정교한 퍼트를 앞세워 2008~2009년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데 이어 2010~2011년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마저 거머쥔 입지전적인 선수다.

야구를 좋아하던 소년은 8살이던 1994년 부모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했고 11년만인 2005년, 시드 선발전을 거쳐 프로에 데뷔했다. 2007년과 2010년 SK텔레콤을 제패하는 등 국내 대회에서 7차례 우승트로피를 안은 그는 일본 무대에서도 2011년 세 차례 정상에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2년 캘러웨이 골프와 3년간 역대 해외 진출 선수 중 최고 조건에 3년간 후원 계약을 하고 주가를 높였다. 퀄리파잉스쿨 도전 삼수 만에 PGA 투어 출전권을 따낸 배상문은 2012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왔다.

지난해 3월 트랜지션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에게 우승컵을 내줬으나 '겁없는 루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일 PGA 투어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키건 브래들리(미국), 찰 슈워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쟁쟁한 맞수를 따돌리고 마침내 샴페인을 터뜨렸다.

배상문은 2009년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의 골프 영웅 이시카와 료와 차세대 골프 황제로 입지를 다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꺾고 우승컵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배상문은 PGA 투어 2년차에 접어든 올해 필 미켈슨(미국), 비제이 싱(피지), 맷 쿠차(미국) 등 유명 선수들을 지도한 릭 스미스를 새 스윙 전담코치로 두고 닉 프라이스(짐바브웨)와 오랜 기간 호흡을 이룬 맷 미니스터를 새 캐디로 맞는 등 세계 정복을 향한 잰걸음을 옮긴 끝에 비교적 일찍 결실을 봤다.

배상문 하면 덩달아 떠오르는 이가 바로 그의 어머니인 시옥희(57)씨다.

아들이 본격 골프를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던 집은 물론 자동차, 반지까지 몽땅 팔아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내 투어 대회에서 직접 골프백을 매고 전국을 돌며 가까이서 아들을 챙기는 등 '열성 엄마'이자 '인생의 캐디'로 배상문의 뒤를 든든히 지켰다. 어머니의 온전한 희생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성장한 배상문이 미국 텍사스주 어빙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개한 기량을 꽃피웠다.

/연합뉴스

신승현,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KIA로 와서 꽃이 되었다

톡&Talk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경쟁과 경쟁을 거쳐 프로선수라는 이름을 얻는 이들. 유니폼을 벗는 순간까지 경쟁은 계속된다. 1군 선수가 되기 위해 또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 많은 선수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인내하고 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름도 있고 존재했었는지도 모르게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주어진 운이 부족해서 그늘에 가려져 있는 이들의 꿈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신승현은 잊혀져 가는 추억의 이름이었다. 2000년 프로에 데뷔한 신승현은 2005년 12승을 챙기며 야구 인생의 정점에 섰다. 2006년에도 8승6패의 성적을 내며 조명을 받았던 그는 2007년 팔꿈치 수술과 함께 마운드를 떠났다. 군복무 시간까지 더해지면서 신승현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KIA로 트레이드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신승현이 아닌 송은범을 얘기했다. 2007년 수술로 자취를 감추면서 2011년과 2012년 모두 9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진 게 최근 기록의 전부였다. 올 시즌에도 신승현의 이름은 없었다.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이지만 채 1주일도 안 돼 신승현은 희망의 이름이 됐다.

특유의 낙천적 성격으로 덕아웃을 들썩이게 했던 송은범과 달리 수줍음이 많다던 그가 처음 KIA 유니폼을 입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행복하다"였다.

신승현은 "항상 준비를 해왔는데 기회가 없었다.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잘 왔다. 잘 해보자. 와서 든든하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주시니까 마음이 좋다"고 웃었다.

'잘 해보자. 믿는다'는 말은 시들어가던 신승현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자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귀한 선물이다.

신승현은 이적 후 5경기에 등판해 7.1이닝 4피안타 3사사구 11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선보였다. 사이드로 빠른 공을 던지는 최향남을 보는 것 같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공을 던지고 있다.

계속됐던 내리막길, 끝이 보이지 않던 좌절의 순간에 서봤던 신승현에게 마운드는 잃을 게 없는 도전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덕아웃에서 신승현은 별로 말이 없다. 왁자지껄 후배들의 농담에 슬며시 웃으며 조용히 그라운드와 덕아웃을 오간다. 하지만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표정에서 그의 오늘을 슬쩍 엿볼 수 있다.

신승현이 KIA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선두권 복귀 '虎시탐탐'

양현종

KIA, 호랑이굴에서 한화·NC 상대 6연전

'호랑이 군단'의 승률 쌓기에 에이스가 앞장선다.

KIA는 지난주 연장전 패배를 당하는 등 SK·LG를 상대로 3승3패의 성적을 내며 승률 높이기에 실패했다. 순위도 두산에 이어 4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송은범과 신승현이라는 새 전력을 가지고도 타선의 침묵과 불투칩 신종길의 부상이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번 주 KIA는 한화, NC를 상대로 홈 6연전을 갖는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들의 대결로 상대적인 부담감은 덜하다. NC와의 전적은 1승1무, 한화에는 3전 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KIA 타선이 초반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시즌 개막과 함께 연패에 빠져있던 한화는 폭발력을 더했다. 패기로 무장한 NC는 지난 주말 끈질긴 승부로 1위팀 삼성을 괴롭혔다.

승리를 지키기 위한 에이스의 어깨가 무겁다. KIA는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 강화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초반 싸움에서 밀리며 마운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승패는 선취점 싸움에서 갈렸다. 선취점을 낸 경기에서 모두 승을 거뒀지만 양현종·윤석민·김진우가 초반 난조로 선제 공격을 당한 3경기는 모두 패배로 끝났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과 선발로 돌아온 윤석민, 두 에이스의 초반 방어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21일 한화 이브랜드와의 선발 맞대결에 나서는 양현종은 이번 주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한다.

양현종은 1.61의 방어율로 니퍼트(1.58)에 이어 2위에 올라있지만 지난 4월 27일 삼성전 이후 20일이 넘게 승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다승 공동 6위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2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35	24	11	0	0.686	0.0
2	넥센	34	23	11	0	0.676	0.5
3	두산	38	21	16	1	0.568	4.0
4	KIA	37	20	16	1	0.556	4.5
5	SK	36	17	18	1	0.486	7.0
5	롯데	37	17	18	2	0.486	7.0
7	LG	35	15	20	0	0.429	9.0
8	한화	36	11	24	1	0.314	13.0
9	NC	36	10	24	2	0.294	13.5

지난 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완투패를 기록한 이후 두 경기에서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우천 취소로 한숨을 돌렸던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1회 2사 이후 연속 3안타와 폭투를 기록하며 점수를 내줬고, 2회에도 폭투와 포수의 송구실책 그리고 볼넷이 겹치면서 점수를 내줬다. 15일 SK와의 경기에서도 1회 첫 상대 정근우에게 안타를 맞은 뒤 보크까지 기록하는 등 6이닝 7피안타 2사사구 5탈삼진 3실점을 남겼다. KIA는 이날 믿었던 양현종의 초반 난조와 지독한 타선의 헛심 공방으로 11회 연장 승부에서 3-4패를 기록했다.

선발 복귀전에 나선 에이스 윤석민과 SK 신예 백인식의 16일 대결도 초반에 흐름이 갈렸다. 윤석민이 2회 조성우와 박진만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기싸움에 밀린 KIA는 결국 백인식 공략에 실패하면서 2-9패로 자존심을 구겼다.

타격 침체로 미뤄졌던 선동열 감독의 500승과 팀의 2000승도 이들의 어깨에 달렸다. 양현종이 21일 승리투수가 되면 선 감독은 프로야구 역사상 10번째로 500승을 채우는 사령탑이 된다. 22일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윤석민까지 승리가 이어진다면 KIA는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2000승 고지를 밟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